

목 차

- I. 머리말
- II. 분포와 입지
 - 1. 분포군 설정
 - 2. 분포군별 입지적 특징
- III. 주거의 구조적 특징
 - 1. 진도·해남권역
 - 2. 탐진강유역권
 - 3. 고흥반도권역
 - 4. 여수반도권역
- IV. 남해안지역의 송국리형 주거문화
 - 1. 주거구조
 - 2. 취락의 형성과 편년
- V. 맺음말

호남 해안지역의 송국리형 주거문화

-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이 종 철(국립전주박물관)

I. 머리말

송국리형문화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핵심적인 문화단계로, 농경의 발달과 문화교류에 중핵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조사되는 양상을 보더라도 송국리형문화가 한반도에 끼친 영향은 다른 문화집단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호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널리 유행했던 송국리형 문화의 핵심적 요소인 주거문화를 중심으로 호남 남해안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반도내에서 다양한 전개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 다다른 지역이 바로 남해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륙에서 제주도로 전개된 송국리형문화의 루트를 파악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호남의 남해안에 위치한 유적군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해안지역의 송국리형 주거문화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남해안지역에 대한 분포권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영역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지역은 본디 출토유물이 빈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유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전개해갈 것이며, 유물에 대한 검토는 취락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II. 분포와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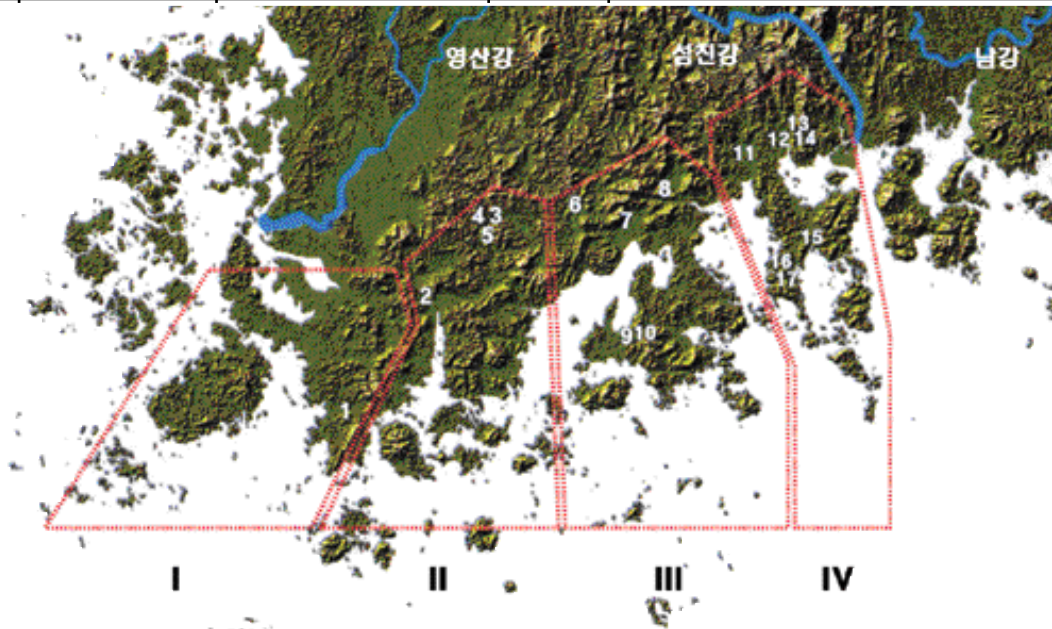
1. 분포군 설정

호남의 남해안 지역은 지리적 특징에 따라 크게 진도, 북동-남서로 뻗은 두륜산(해발 703m)을 중심으로 이서의 해남군과 이동의 강진만유역, 보성 지역을 포함하는 고흥반도권역, 순천·광양 지

역을 포함하는 여수반도권역으로 세분될 수 있다. 특히 강진만유역은 탐진강 수물지역을 중심으로 한 탐진강유역의 고고학적 성과(호남고고학회 2008)로 정리된 바 있어 여기에서는 탐진강유역권으로 설정하고자 한다.¹⁾

〈표 1〉 호남 남해안지역의 송국리형 주거문화 분포권

분포권	세부 지역	특징	유적	
I	진도·해남권역	진도군, 해남군	심, 평원 곡간평지	1해남 분토리
II	탐진강유역권(강진만유역권)	강진만유역, 탐진강유역: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곡간평지	2강진 수양리 3장흥 갈두·4신풍·5상방촌
III	고흥반도권역	보성군, 고흥군	곡간평지 반도	6보성 동촌리·7금평·8거석리 구주 9고흥 방사·10한동
IV	여수반도 권역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곡간평지 반도	11순천 대석 12광양 칠성리·13용강리 기두·14관동 15여수 화장동 대통·16화동리 안골·17소장



1) 두륜산을 경계로 이서와 이동이 나누어지는 해남군과 강진군의 문화적 차이가 송국리형문화에서 어느정도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실정이지만, 여기에서는 분포적 특징을 살피기 위해 세분하였다.

2. 분포군별 입지적 특징

주거유적의 입지는 구릉정상부, 경사면, 곡간평지, 충적대지로 구분된다. 이들 가운데 구릉의 경사면에 입지하는 유적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곡간평지와 상대적으로 평원을 이루는 충적대지가 선호되었다. 특히 취락은 충적대지에 형성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가장 두드러진 유적은 탐진강유역의 장흥 갈두와 신흥유적이다.²⁾

〈표2〉 분포군별 유적의 입지

분포군	구릉정상부	구릉 경사면	곡간평지	충적대지
I 진도·해남권역	해남 분토리			
II 탐진강유역권		강진 수양리		장흥 갈두·신흥·상방촌
III 고흥반도권역	보성 동촌리	보성 금평 보성 거석리 구주 고흥 한동·방사		
IV 여수반도권역		광양 용강리 관동 여수 화장동 대통 순천 연향동 대석	광양 용강리 기두 여수 화동리 안골 여수 화동리 소장	광양 칠성리

호남의 남해안지역은 대부분 곡간평지나 충적대지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취락을 형성하는 단일 주거수 역시 다른 입지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표3〉 분포군별 입지 현황 비율

분포군	대상 주거총수	주거 입지(%)				계
		구릉 정상부	구릉 경사면	곡간평지	충적대지	
I 진도·해남권역	9	9(5)				9
II 탐진강유역권	95		1(0.5)		94(57)	95
III 고흥반도권역	8	1(0.5)	7(4)			8
IV 여수반도권역	53		21(13)	24(15)	8(5)	53
계	165					165

2) 탐진강유역의 송국리형 주거유적 수량은 탐진강 수물지구에서 이루어진 집중적인 발굴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강진만 일원에서는 수양리 유적을 제외하면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륙에 입지한 취락의 영향이 해안과 인접한 평원에서 어떠한 전개과정을 이루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Ⅲ. 주거의 구조적 특징

1. 진도·해남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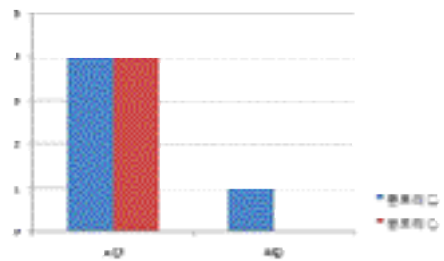
1) 주거유형

분석대상은 해남 분토리유적이 유일하다. 유적에서는 송국리형 주거지를 비롯하여 타원형구덩이가 존재하지 않는 원형계 주거지도 조사되었다. 여기에서는 송국리형 주거지만을 대상으로 살펴보겠다.

주거유형은 모두 내주공이 설치된 A형 일색이며 1기만이 4주가 설치되었다. 이 권역은 주거유형의 획일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사된 유적이 한 곳에 지나지 않아 추후 자료축적이 요구된다. 다만 해남지역은 탐진강유역과 매우 근접해 있고 영산강유역권(하류지역)의 영향하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주공이 설치된 A형의 주거가 다수 조사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생각된다. 평면형태는 원형과 방형이 대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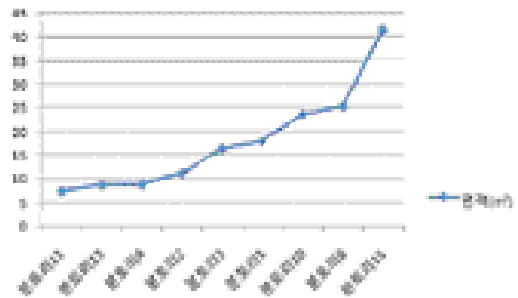
〈표4〉 진도·해남권역 송국리형 주거 현황

유적	평면형태	A①	A②	계
분토리	□	4	1	5
	○	4		4
계		8	1	9



2) 주거면적

해남 분토리 주거의 면적은 크게 4군으로 구분된다. 10㎡, 17㎡, 24㎡, 41㎡를 전후한 크기에서 약간의 차이만을 갖는다. 진도·해남권역과 근접한 탐진강유역의 신평·갈두 취락과 비교할 때 소형(10㎡ 전후)-중형(17㎡, 24㎡ 전후)-대형(41㎡ 전후)의 범주에 해당된다(이종철 2008). 특히 분토리 15호는 중형과는 약 15㎡ 이상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분토리 유적 내에서는 초대형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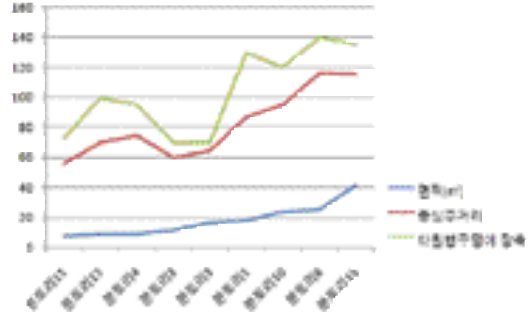


〈도표 1〉 진도·해남권역 주거면적

3) 중심주간 거리와 면적·타원형구덩이의 관계성

중심주간 거리와 타원형구덩이는 거의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기의 사례를 제외하면 면적과 중심주간 거리 역시 거의 정비례에 가깝게 대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8호와 15호의 면적 차이가 15m^2 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중심주간 거리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유로, 4주에 의해 지붕의 하중을 분산시킴으로서 면적 증가에 따른 중심주간 거리의 증가를 한정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4주의 기능은 대형 주거를 축조하는 기술적 요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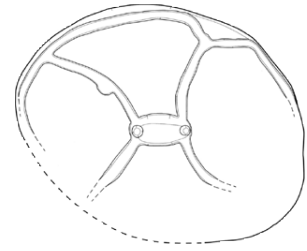


〈도표 2〉 중심주·면적·타원형구덩이 분포 (면적 기준)
도표의 그래프는 아래부터 면적·중심주·타원형구덩이 순

4) 내부시설

(1) 벽구시설 및 유인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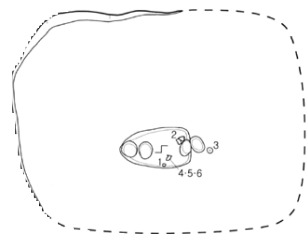
벽구시설과 유인수로는 8호에서만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벽면을 따라 마련된 벽구는 구릉 상부쪽으로만 형성되어 있으며, 유인수로는 타원형구덩이를 중심으로 X자 형태를 이룬다. 13호는 중앙부에서만 유인수로가 확인되었다.



분토리8호

5) 구조변화

분토리 1호 주거지에서는 개축 혹은 중심기둥에 대한 보강주의 흔적이 발견된다. 내주공이 설치되는 주거는 보통 중심주의 축이 교차되거나 타원형구덩이를 새로 조성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동일축으로 형성된 복수의 중심주는 일반적이지 않다. 중심주간 거리는 87cm로 측정되며, 주거의 규모는 중형에 해당된다.



분토리1호

2. 탐진강유역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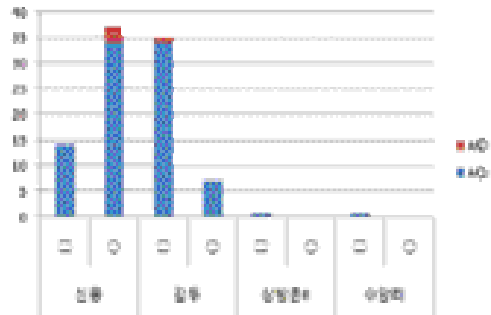
1) 주거유형

탐진강유역의 송국리형 주거는 매우 획일적인 혹은 보수적인 주거형태를 보인다. 평면형태는 방

형제와 원형제가 대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신풍유적과 갈두유적에서 발견된다. 신풍유적은 원형제가 대세를 이루는 주거유적으로 방형보다 원형이 중첩관계상 앞서고, 반대로 갈두유적은 방형제가 대세를 이루면서 방형이 원형보다 이른다. 이러한 점에서 탐진강유역의 송국리형 주거는 대체로 원형제와 방형제 중에서 한 형태를 집중적으로 선호했으며, 타원형구덩이 내부에 기둥을 설치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주공이 없는 내주공 일색의 주거형식이라는 점에서 영산강유역의 주거경향과 유사하다.

〈표5〉 탐진강유역 송국리형 주거 현황

유적	평면형태	A①	A②	계
신풍	□	14		14(27%)
	○	34	3	37(73%)
갈두	□	34	1(?)	35(83%)
	○	7		7(17%)
상방촌B	□	1		1
	○			
수양리	□	1		1
	○			
계		91	4	95



※()는 개별유적에서의 비율

2) 주거면적

탐진강유역의 주거면적은 1기만 조사된 상방촌과 수양리는 제외하고 대규모로 조사된 갈두와 신풍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갈두 유적은 10~15㎡ 미만의 범위에서 완만한 격차를 이루는 1군(10.3~13.8㎡), 15~23㎡ 범위에서 완만하게 집중된 2군(15.3~23㎡), 33㎡ 범위에 있는 3군, 그리고 48㎡에 분포하는 4군으로 나눌 수 있다.

신풍 유적은 10~11㎡에 집중된 1군(9.3~13.1㎡), 16~17㎡에 집중된 2군(14.1~27.9㎡), 33~39㎡에 집중된 3군(33.2~39.9㎡), 47~50㎡ 사이의 4군(47.4~50.2㎡)으로 나눌 수 있다. 4개의 면적군은 두 유적에서 서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갈두에서 나타나는 대형주거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일시기에 대형주거는 신풍 유적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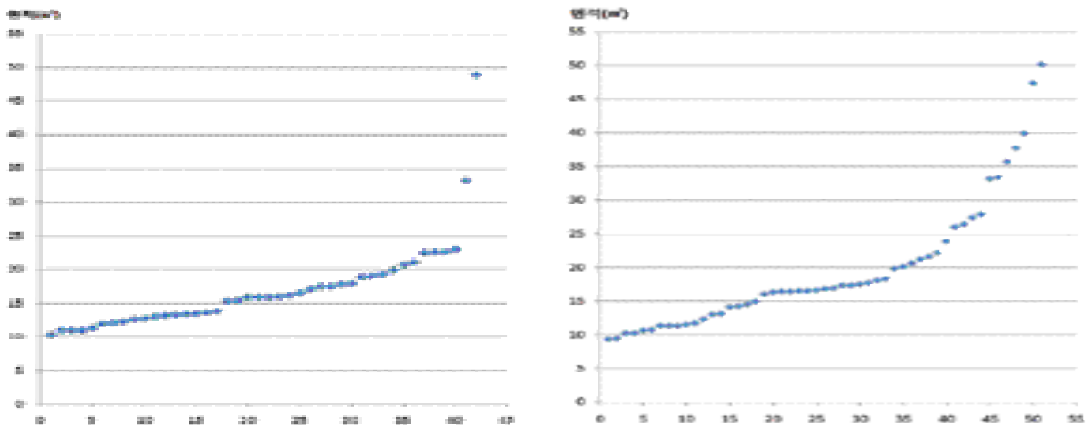
두 유적에서 나타나는 각 군간의 격차는 당시 구성원들에게 부여된 제약성에 있었거나 구성원수에 따른 선호도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1군은 소형, 2군은 중형, 3군은 대형, 4군은 초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갈두와 신풍 유적은 시기적인 문제로 대형주거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대체적인 면에서 동일한 주거면적군을 갖추고 있다. 주거지 수에 비추어 볼 때 갈두와 신평은 소형과 중형에서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중형 주거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비율이 소형보다 취락내에서 안정된 비율을 점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특히 15~30㎡ 내외에 집중되는 현상은 부모와 한 자녀 이상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중심을 이룬다는 것과 통하기 때문에 두 유적은 3인 가족 이상 6인 가족 미만의 핵가족화가 대체를 이루는 집단이었다고 생각된다.³⁾ 특히 이러한 현상은 신평 유적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형주거 내에서도 각 단위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초대형에 속하는 주거군이 갈두와 신평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의 주거군이 갈두 유적에서 극히 적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당시 두 유적의 사회구조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주거는 6명 이상~8명 이하의 구성원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공건물 등 특수목적의 주거가 아니었다면 가족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갈두 유적에서는 대형과 초대형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 면적이 거의 동일한 범위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방형계가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대형(갈두II-9호)과 초대형(갈두I 가13호)은 내주공간을 갖는 원형으로 축조된 점이다. 이것은 신평에서 4주가 적용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신평 유적은 방형계와 원형계 모두 동일한 분포를 이루고 있어 특정 범위에 집중되거나 평면형태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초대형의 주거도 각각 1기씩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초대형의 원형계 주거(14호)는 4주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방형계(27호)는 내주공간 설치되는 점이 다르다. 이에 비해 대형의 주거는 원형계에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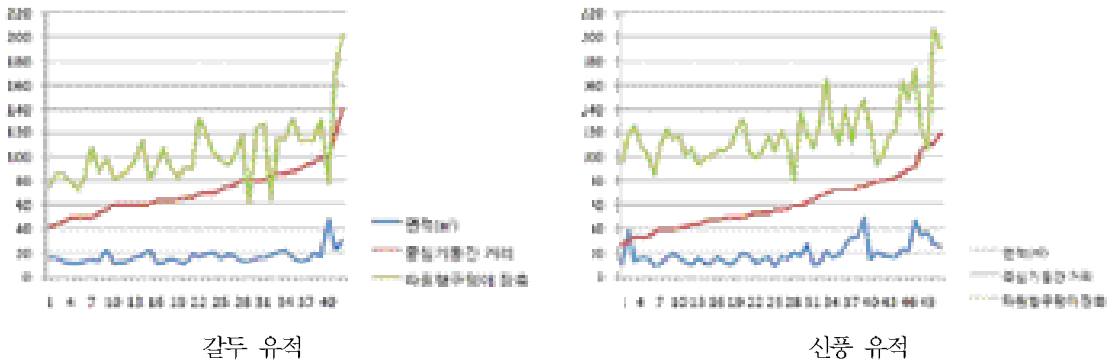
〈도표 3〉 갈두(좌) 유적과 신평(우) 유적의 주거면적

3) 1인당 기준단위 면적을 5㎡로 설정함(김정기 1974).

3) 중심주간 거리와 면적·타원형구덩이의 관계성

갈두와 신평 유적에서 중심주간 거리는 각각 40~120cm, 30~120cm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전체적인 양상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갈두 유적은 중심주간 거리가 계단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여러 기의 주거가 동일한 거리의 중심주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중심주간 거리의 규격화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신평유적은 수평을 이루는 거리가 짧고 매우 완만한 사선을 이루고 있어 개별주거의 중심주 거리가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재尺를 이용한 정확한 설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cm 또는 15cm를 단위로 그룹화 하여 분석한다면 중심주간 거리의 일률성은 매우 안정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중심주간 거리의 기복이 수평선을 이룰수록 축조기술은 정형화되고 규격화되어 감을 말해주는 동시에 변화에 대한 자극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대로 기복이 심하고 수평선의 길이가 짧다는 것은 각 주거의 구성원이 서로 다른 척도를 가짐으로서 획일성을 탈피하려는 경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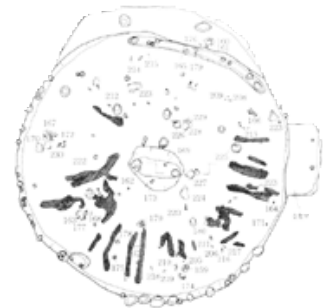


〈도표 4〉 중심주·타원형구덩이 장축·면적 분포 (중심주간 거리 기준)
 도표의 그래프는 아래부터 면적·중심주·타원형구덩이 순

4) 내부시설

(1) 출입시설

출입시설이 확인된 유적은 장흥 신평 유적 14호 주거지가 유일하다. 보고서에서는 출입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벽의 가장자리를 따라 확인된 주공들의 거리와 공간적 비율로 볼 때 운동성이 매우 높게 예상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주거지의 출입시설은 북서향을 하고 있고 계단식이다. 특히 4주와 도리방향의 관계에서 약간 측면으로 치우쳐 설치하였다.



신평14호

(2) 단시설

주거지의 한 쪽 면 또는 일부를 바닥면보다 높게 굴착한 평탄면은 지금의 선반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시설은 장흥 신평 14호와 인근의 갈두 나-7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두 주거지는 각각 원형과 방형으로서 평면형태가 원형인 전자는 주거 윤곽선 외곽부에, 방형인 후자는 주거 윤곽선 안쪽에 마련한 점이 다르다. 그러나 중심기둥에 의한 도리방향과 평행하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갈두나-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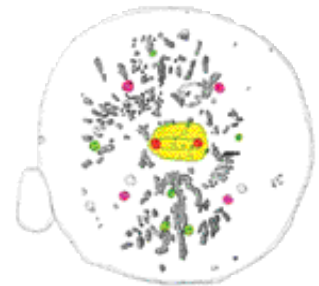
단시설이 주거의 내부와 외부에, 또는 한쪽이나 양쪽에 마련되는 점에서 주거 내부생활의 용도에 맞게 활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벽구시설

신평 14호 주거지에서만 확인되었고, 14호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지와 장흥 갈두 유적의 주거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벽구시설의 부재가 탐진강유역 송국리형 주거의 한 특징(이영철·박수현 2005)으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의 축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유적의 입지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유적군의 수량이 적고, 아직까지 입지의 다양성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화층의 기반토가 사질토로 형성되어 있어 물빠짐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구조변화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는 송국리형 주거는 큰 하천을 기반으로 입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금강유역은 매우 활성화된 건축기술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영산강유역은 매우 보수적이고 획일적인 경향(이종철 2000a)을 보일 뿐만 아니라 원형계 주거가 방형계보다 면적이나 수량에서 우위를 점하는 특징을 보인다(유향미 2006). 탐진강유역은 영산강과 섬진강유역 사이에 존재하고 있지만, 모두 A형(A①)을 채택하고 있고 극히 일부에서 4주가 적용될 뿐이어서 영산강유역의 범주 또는 영향 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신평3호

그런데 비활성화된 건축기술속에서도 극히 일부에서 변화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신평 유적 15호 주거지가 그것으로, 이 주거지는 증축 또는 확장의 모습을 보여준다(이종철 2002b, 박수현 2004). 비록 단순하게 A①형의 연장선상에서 복수의 타원형



신평15호

구덩이와 중심주로 구성되었다 할지라도 탐진강유역에서는 유일한 사례이다. 이러한 주거의 확장형태는 부여 나복리 12호·13호, 광주 외촌, 진주 대평리 어은2-24호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외에 복합구조일 가능성이 높은 주거지로는 신평 3호가 있다. 이 주거지는 A②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4주를 지탱하는 각 도리와 보에 면하여 주공이 존재한다. 비록 완벽한 형태와 정형성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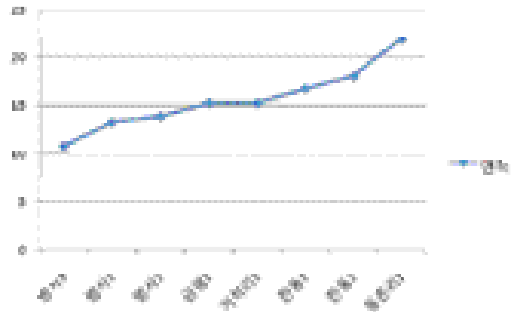
3. 고흥반도권역

1) 주거유형

고흥반도에서는 송국리형 주거의 발견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원형계가 축조되고 있다. 특히 3기가 조사된 고흥 방사유적은 모두 원형계이다.⁵⁾ 특히 A①형에 집중되어 있어 주거의 보수성 혹은 획일성이 보인다.

2) 주거면적

고흥반도권역에서 조사된 주거지는 10~22㎡ 사이에 축조된 주거들이다. 이들 크기는 탐진강유역과 비교한다면 소형이나 중소형에 해당된다. 따라서 핵가족화된 주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이형의 지식묘가 조사된 동촌리 주거지가 가장 크다. 이 주거지는 후술하겠지만 증·개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주거들보다 큰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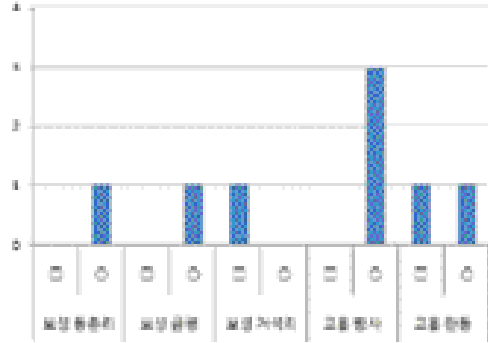


〈도표 5〉 고흥반도권역 주거면적

- 4) 복합구조의 형태는 사천 이금동과 보령 관창리에서 볼 수 있다. 이금동은 모두 외주공을 기본으로 하면서 6~24개의 주공이 거의 원형을 이루어 설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타원형구덩이를 중심으로 돌레기둥(圍柱)을 설치한 것은 의도적인 축조수법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구조틀에서 응용·발전된 주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평 3호 주거지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된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복합구조의 이원화현상이 지역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이금동형 주거가 타원형구덩이를 중심으로 돌레기둥의 집중화를 모색하여 중앙의 외곽부를 활동공간으로 활성화 하는 주거라면, 관창리형 주거는 타원형구덩이와 중심주의 축을 고려하여 평행하게 분산설치함으로써 기둥열에 의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특색을 보인다는 것이다(이종철 2006).
- 5) 원형과 말각방형의 차이는 3번 이상의 분명한 직선화와 말각처리의 유무로 판단하였다. 고흥 방사유적의 보고자는 1호를 원형, 2호를 말각방형, 3호를 원형 또는 말각방형으로 보았으나 필자는 도면과 사진자료를 근거로 이들 모두를 원형계로 처리하였다. 또한 고흥 한동유적에서는 1호를 말각방형, 2호를 말각방형으로 보았으나 이 역시 같은 근거로 1호를 원형계(타원형)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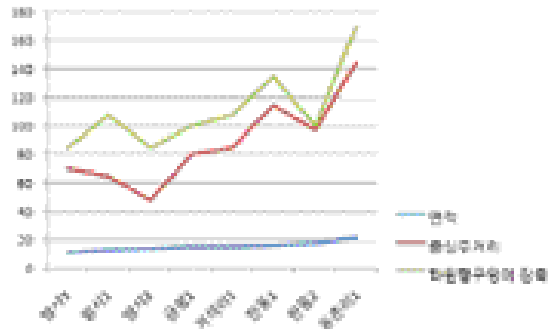
〈표6〉 고흥반도권역 송국리형 주거 현황

유적	평면형태	A①	계
보성 동촌리	□		
	○	1	1
보성 금평	□		
	○	1	1
보성 거석리	□	1	1
	○		
고흥 방사	□		
	○	3	3
고흥 한동	□	1	1
	○		1
계	□	2	8
	○	6	



3) 중심주간 거리와 면적 · 타원형구덩이의 관계성

고흥반도권역은 모두 A①형 주거만 조사된 곳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중심주간 거리와 타원형구덩이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표 6〉과 같다. 중심주가 내주공인 주거이기 때문에 중심주간 거리와 타원형구덩이 장축은 어느정도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면적에 대한 중심주간 거리는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주거지의 규모가 클 수록 중심주간 거리도 커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금강유역에서처럼 중심주간 거리의 정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즉 면적과 관계없이 어느정도 고착화된 중심주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까지도 연관된다. 이는 좀 더 많은 자료의 축적과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획일화된 주거 유형의 전통 속에서 통제 혹은 제한 요소로부터 벗어났거나 기술적 변화가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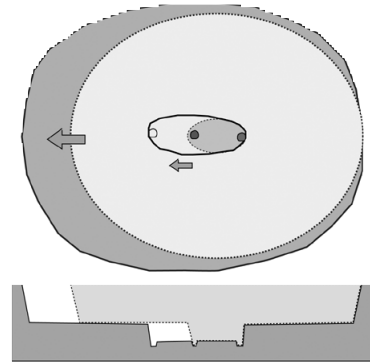


〈도표 6〉 중심주 · 타원형구덩이 장축 · 면적 분포 (면적 기준)
도표의 그래프는 아래부터 면적 · 중심주 · 타원형구덩이 순

4) 구조변화

고흥반도권역의 주거지들은 형태적으로 매우 획일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보성 동촌리 주거지에서만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즉 타원형구덩이 내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중심기둥은 2개이며, 양측에 설치된다. 그러나 이 주거지의 타원형구덩이 중앙부에 기둥구멍이 존재하고 있어, 주거지의 확장으로 타원형구덩이의 장축이 길어지면서 평

면형태도 타원형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1차 조성 주거의 면적은 다소 오차가 있겠지만 약 16.5㎡였을 것으로 추산되며 약 1.3 배의 확장을 거쳐 지금의 규모로 남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초의 중심주간 거리가 80cm였으며 확장 후 거리가 145cm로 추산되는 것으로 볼 때 약 2배에 가깝게 중심주간 거리가 늘어졌으며, 따라서 도리의 길이와 두께에도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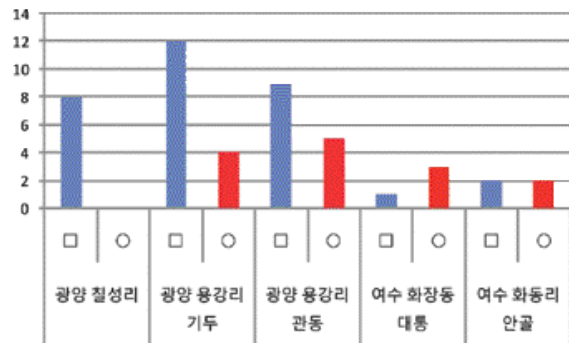
〈삽도 1〉 동촌리 주거의 변화 모식도

4. 여수반도 권역

1) 주거유형

여수반도권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주거유형이 확인되었다. 7개의 유적 가운데 광양 용강리 관동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하였다.⁶⁾

이 지역권은 방형이든 원형이든 내주공을 갖춘 A형 일색인 타지역권에 비해 외주공을 갖춘 B형과 중심기둥이 사라지고 타원형구멍이만 있는 C형이 공반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방형계가 원형계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도 두드러진다. 특히 외주공과 방형계의 조합은 광양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남강유역과의 지리적·문화적 영향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다. 여수지역은 아직까지 많은 유적이 조사되지 않아 분명하지는 않지만 외주공의 설치는 비활성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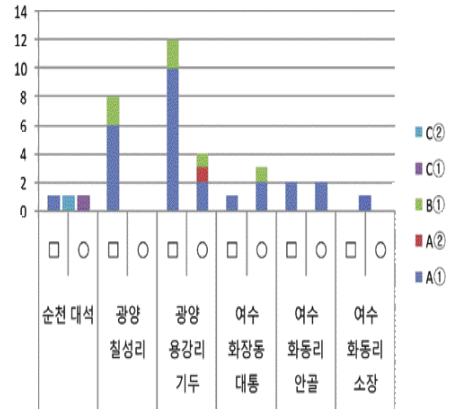
〈도표 7〉 여수반도권역 주거의 평면형태

여수반도권의 주거양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7〉과 같으며 특징적인 주거유형은 내주공과 외주공이 설치된 주거로 대별된다.

6) 분석대상 주거지 가운데 주거유형은 파악되었으나 평면형태를 알 수 없는 것으로는 순천 대석 2호(C②), 여수 화동리 소장 1호(A①), 광양 용강리 기두 2호(A①)·17호(A①)·18호(A①)가 있다. 용강리 관동 유적은 보고서 미간으로 주거지의 평면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할 수 없어 본 글에서는 제외하였다.

〈표7〉 여수반도권역 송국리형 주거 현황

유적	형태	A①	A②	B①	C①	C②	계
순천 대석	□	1					1
	○				1	1	1
							1
광양 칠성리	□	6		2			8
	○						
광양 용강리	□	10		2			12
	○	2	1	1			4
광양 용강리	□						9
	○						5
여수 화장동	□	1					1
	○	2		1			3
여수 화동리	□	2					2
	○	2					2
여수 화동리	□	1					1
	○						
계		27	1	6	1	1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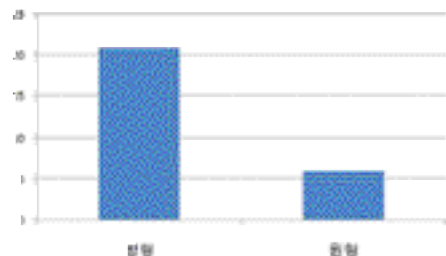


(1) A형 주거

소위 ‘되지코’ 모양의 내주공을 갖춘 A형 주거는 총 31기 중 A①형은 30기, A②형은 1기로, 전자가 절대 우위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평면형태는 27기에서 확인되며 원형 6기, 방형 21기로, 방형이 전체 78%를 차지하고 있어 대세를 이룬다.

〈표8〉 여수반도권역 A형 주거 현황

유적	형태	A①	A②	계
A형 주거	유형	30	1	31
	□	21		21 (78%)
	○	5	1	6 (22%)
				27



(2) B형 주거

외주공을 갖춘 B형 주거는 총 6기로 아직까지 4주식은 조사되지 않았다. 평면형태는 A형 주거에 서와 같이 방형계가 대세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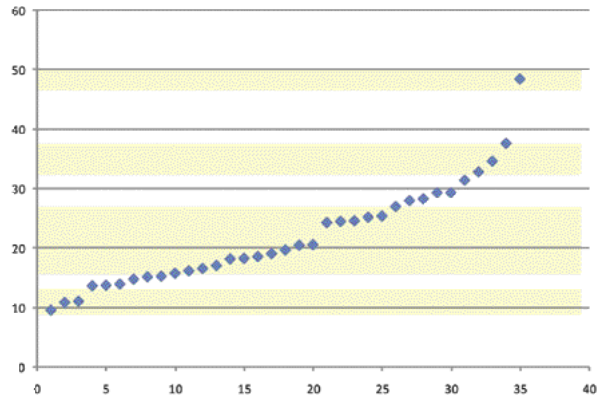
〈표9〉 여수반도권역 B형 주거 현황

유적	형태	B①	B②	계
B형 주거	유형	6	없음	6
	□	4	-	4 (70%)
	○	2	-	2 (30%)
				6



2) 주거면적

여수반도에서 조사된 주거지의 면적은 10㎡ 전후(1군), 13~20㎡내(2군), 24~37㎡내(3군), 48㎡전후(4군)에서 집중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집중도는 주거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탐진강유역(연두색 영역)과 비교했을 때 유사성을 보여준다. 다만 1군과 4군은 동일 범주에 속하고 있지만, 2군과 3군은 하위 범주에 놓여 있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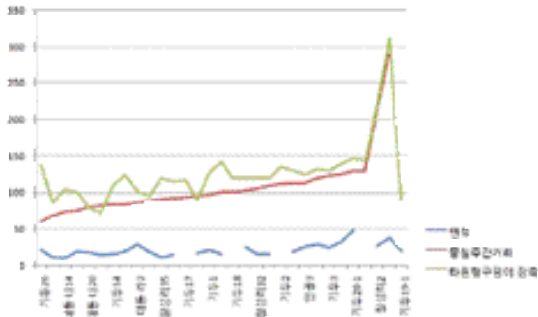


〈도표 8〉 여수반도권역 주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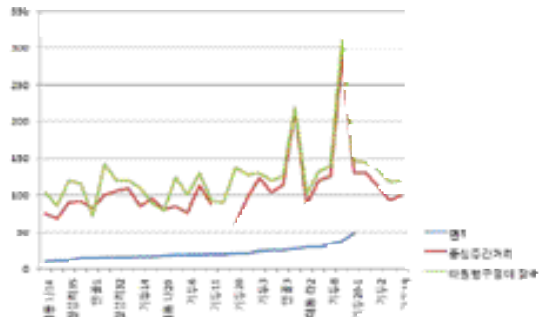
주목되는 점은 2군과 3군의 경계가 22㎡를 기준으로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지만 유적의 조사 여부에 따라 2군은 30㎡ 이하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면 면적의 격차가 현저한 30~40㎡ 사이의 주거들은 탐진강유역의 제 3군(대형)의 범주와 거의 동일하게 되며 2군 역시 같은 범주로 귀속된다. 단, 여수반도권역에서 20~24㎡ 사이의 주거들이 다수 조사되어 공백을 메꿀 때에 가능하다.

3) 중심주간 거리와 면적·타원형구덩이의 관계성

A형 주거에서 중심주간 거리는 중서부평야지대와 금강유역에서 70cm를 전후하는 범위에 집중되는 정형성이 확인되는 반면 영산강유역을 비롯한 남부지역에서는 뚜렷한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전체적인 면에서 면적에 어느정도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중심주간 거리의 정형성이 남부지역으로 갈 수록 면적과 어느정도 연관되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형태의 정형은 계승하되 내부적으로 탈정형성을 갖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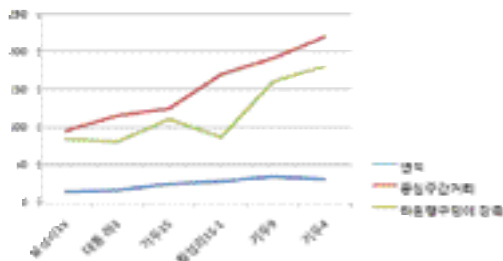
중심주간 거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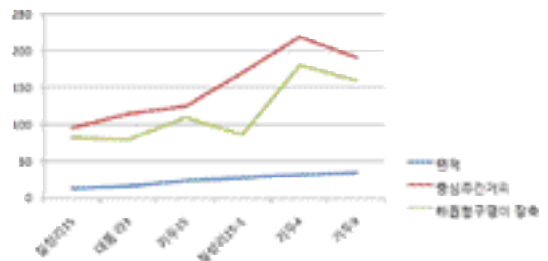
면적 기준

〈도표 9〉 중심주 · 타원형구덩이 장축 · 면적 분포
 도표의 그래프는 아래부터 면적 · 중심주 · 타원형구덩이 순

B형 주거에서는 중심주간 거리가 타원형구덩이의 장축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면적과의 관계성이 A형 주거보다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비록 완벽한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는 서로 비례적 성향이 강하다.



중심주간 거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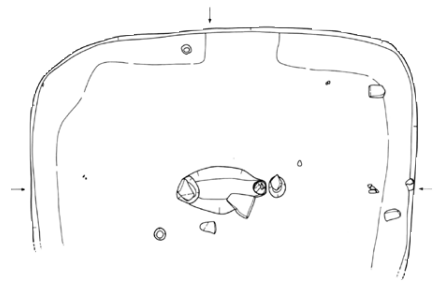
면적 기준

〈도표 10〉 B형 주거의 중심주 · 타원형구덩이 장축 · 면적 분포
 도표의 그래프는 아래부터 면적 · 타원형구덩이 · 중심주 순

4) 내부시설

(1) 출입시설

주거 내에서 입출구의 위치는 의도적으로 조성한 계단이나 경사면 혹은 돌출부 등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수반도권역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형태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출입시설의 존재가 예상되는 주거로는 기둥 12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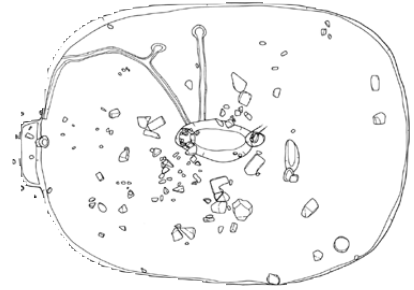


〈삽도2〉 용강리 기둥12호

주거지의 내부는 5cm 가량의 두께로 바닥다짐이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송국리형 주거는 중앙부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을 다짐처리하거나 불처리를 한다. 광양 용강리 기두 6호, 11호, 12호, 19호에서 이러한 현상이 확인된다. 그런데 12호에서만 동쪽 장벽의 중앙부로 이어진 100cm 너비의 다짐흔적이 확인되었다. 이 흔적은 취락의 중앙부에 형성되어 있는 20-1호 주거를 향하고 있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2) 단시설

단시설은 주거지 벽면 안쪽이나 바깥쪽에 일정 공간을 마련하여 생활공간으로 활용한 곳으로, 물건을 놓아두는 일종의 선반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시설은 기두 8호에서만 확인되었다. 내벽 밖으로 공간을 마련하고 일정 간격의 기둥을 세운 것으로, 건물 단벽 중앙에 마련한 포켓형의 공간으로 생각된다. 바닥으로부터 25cm 가량의 높이에 마련된 100×40cm 넓이의 선반은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놓아두기보다는 특정 물건을 놓아두었을 개연성이 높다.



〈삽도 3〉 용강리 기두12호

(3) 유인수로

광양 용강리(기두)유적에서만 확인되었다. 기두 8호와 14호에서는 내벽 가장자리로부터 타원형구덩이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방향은 구릉의 상부를 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현재까지 조사되는 유인수로는 구릉 상부쪽으로부터 타원형구덩이로 모이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 내부의 상황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했다.

유인수로는 구릉 경사면을 따라 주거 내부로 유입되는 빗물 등을 타원형구덩이로 집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상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원형구덩이를 집수 전용시설로 볼 수는 없다.

5) 구조변화

(1) 타원형구덩이의 노지화에 따른 구조 변화

타원형구덩이의 기능이 변화됨에 따라 주거유형이 바뀌는 경우가 순천 대석 유적에서 확인되었다. 대석 2호 주거는 본디 A②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어느 시점에 C②형으로 개축되었다. 그 원인은 타원형구덩이의 노지화에 있다. 주거지 중앙부 타원형구덩이에서는 내주공 1개가 현존하고 있어 중심기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타원형구덩이의 노지화는 청원 내수리, 천안 대흥리, 서천 한성리, 익산 부송동, 완주 반교리, 정읍 보화리, 영광 마전, 순천 대곡리 유적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이종철 200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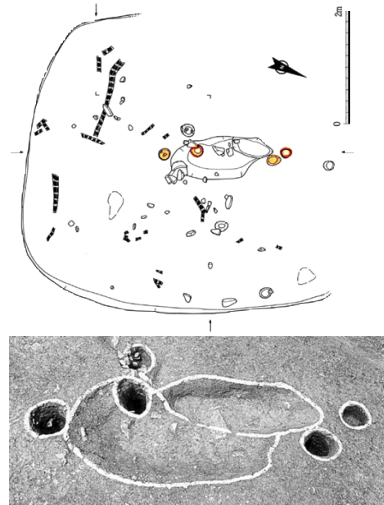
(2) 개축

송국리형 주거에서는 개축을 비롯한 증축 및 확장·보강 등 구조적인 변화가 확인된다. 여수반도 권역에서는 광양 용강리 기두 유적에서 개축의 흔적만이 확인되었다. 기두 4호 주거지에서는 2차에 걸쳐 타원형구덩이와 중심기둥이 조사되었다. 이것은 2번에 걸친 바닥 재공사와 그에 따른 중심기둥의 교체 및 지붕 새단장을 의미한다.

기두 9호 주거지는 2번에 걸친 타원형구덩이와 중심기둥이 확인되었다. 복수의 타원형구덩이는 서로 중첩되어 있어 선후관계가 분명하다. 최초에는 큰 타원형구덩이와 외주공, 나중에는 작은 타원형구덩이와 외주공이 설치됨에 따라 4호와 같은 개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주거의 개축 현상은 전주 송촌동2가 유적에서도 볼 수 있다. 최초의 주거형태는 타원형구덩이와 4주가 설치된 C②형이었지만 어느 시점에 10cm 정도의 점토를 깔아 다진 후 4주 없이 타원형구덩이만 설치한 C①형의 주거로 바꾸어 생활했던 것이다(김승옥·고금님 2004)

이외에 개축 및 보강 혹은 과도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중심주공의 변화상을 볼 수 있다. 용강리 기두 유적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주거지로 내주공이 설치된 타원형구덩이 외부에 1개의 외주공이 남아있다. 기두 3-1호, 기두 12호, 기두 18호, 기두 19-1호가 그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인근의 용강리 관동 유적에서도 조사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A형과 B형의 과도적인 구조로 보여지지만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삽도4〉 용강리 기두9호

IV. 남해안 지역의 송국리형 주거문화

1. 주거의 특징

1) 주거구조

남해안지역 송국리형 주거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첫째, 소위 '돼지코형 주거'로 불리는 내주공의 주거가 독보적인 우세를 보인다. 이러한 주거는 송국리형 주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장구한 주거의 정형성과 전통성을 보

여준다.

둘째, 진도·해남권역, 탐진강유역권, 고흥반도권역은 내주공의 주거(A형) 일색인데 반해, 여수반도권역은 외주공의 주거(B형)와 타원형구덩이만 존재하는 주거(C형)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색을 보인다. 여수반도권역은 점이지대 혹은 문화적 동화나 융합 지대로 판단된다.

셋째, 주거의 평면형태는 방형과 원형으로 대별되며 한 유적에서 병존한다. 시기적 또는 집단의 성격 차이에 의한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집단내 선호도에 따른 분포적 특성으로 판단된다.

넷째, 진도·해남권역과 탐진강유역권은 방형계와 원형계가 대등, 고흥반도권역은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원형계가 우세, 여수반도권역은 방형계가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

다섯째, 주거면적은 크게 4군(소형-중형-대형-초대형)으로 구분되며, 탐진강유역의 갈두와 신평유적의 분포양상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각 군에서는 중형 주거가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룬다. 이는 취락내 분화된 가구의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핵가족화된 사회구조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중심주간 거리는 면적과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패턴상 규모가 커질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외주공간 거리는 비례적 경향이 내주공보다 높다. 내주공의 중심주간 거리는 금강유역에 비해 탈정형적 성향을 갖는다.

일곱째, 취락 내에서는 개축, 증축, 복합구조 등 구조적 변화가 일부에서 확인되며 타원형구덩이의 노지화에 따른 구조변화도 존재한다.

2) 내부시설

남해안지역 송국리형 주거의 내부시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입시설은 모든 주거에서 필수적이지만 탐진강유역의 신평14호와 여수반도권역의 기두12호에서 그 가능성이 보인다.

둘째, 선반과도 같은 기능의 단시설은 탐진강유역의 신평14호와 갈두 나-7호, 여수반도권역의 기두8호에서만 확인되었다.

셋째, 벽구시설과 유인수로는 해남의 분토리8호, 탐진강유역의 신평14호, 여수반도권역의 기두8호와 14호에서만 확인되었다.

2. 취락의 형성과 편년

1) 취락구조

취락은 다음과 같이 대표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장흥 갈두 유적

갈두 유적은 마을의 중앙에 특수 목적의 초대형 주거(13호)를 중심에 두고 그 주변에 3개의 주거군이 조성되는 구조이다. 4개의 주거군이 동시에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1,2,3군은 공존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북쪽 경사면에 조성된 4군은 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갈두 유적의 마지막 단계로 보인다. 그러나 이 주거군이 지속되는 동안에 나머지 주거군이 공존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표10〉 갈두 유적의 주거군 현황

주거군		해당 주거	특징	
1군	초대형	가13	· 취락내 의사결정 및 중재의 핵심지 · 특수목적의 초대형 주거 1기 · 수혈유구 존재	
	중형	가14		
	소형	가12, 15, 16		
2군	2-1	중형	나8-1, 8-2, 10, 11, 13-2	· 중형주거가 중심을 이룸 · 소형주거는 주변에 조성
		소형	나7, 9, 12, 13-1	
	2-2	중형	나3	· 3-1-4, 5-14-15, 16-17, 2,6 배치 · 2~3기 중심의 주거 배치 · 소형 주거가 대세이룸
		소형	나1, 4, 5, 14, 15, 17, 16, 2, 6	
3군	3-1	중형	가7, 8, 9	· 중형과 소형주거의 비율 조화이룸 · 1, 2호 미상 · 수혈유구 존재
		소형	가10, 11	
	3-2	중형	가4, 5	
		소형	가3, 6	
4군	대형	9	· 단위내 소그룹화 이룸 · 9-(8)-10, 2-3-4, 1-5(6)-7 · 유적내 낮은 단계의 주거군	
	중형	2-3-4, 1, 5-7, 8-10		
	소형	6		

마을의 중앙에 축조한 초대형의 주거는 석기류들만 출토되었다. 이들의 분포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중앙부와 주변부에 산재하고 있다. 면적으로 볼 때 9~10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핵가족화가 가속되던 갈두 유적에 대가족체의 존재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가13호는 3~4군의 대표 혹은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구성원들의 집회소와 같은 성격으로 판단되며,⁷⁾ 13호 옆에 축조된 중형의 14호와 소형의 주거군은 우두머리격 혹은 대인(大人)과 같은 성격의

7) 안재호는 대형주거지의 성격을 공공건물로서의 본촌리식 주거지와 세대공동체가 생활했던 대형건물로서의 관산리식 주거지로 정리한 바 있다(안재호 2006). 그러나 이러한 주거지는 세장방형의 주거로서 공간분할이나 공공 혹은 개인의 주거 흔적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지만 송국리형 주거는 세대공동체의 주거가 분화되는 핵가족화 현상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특수목적의 대형 혹은 초대형 건물은 공공의 성격이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13호에서는 최대 40~50명(1인당 1㎡)을 수용하여 집회 또는 공동작업을 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삽도 5〉 장흥 갈두 유적의 취락 개념도

구성원과 연관된 주거군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조직체의 흔적은 갈두 유적의 마지막단계로 판단되는 4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4군은 2-3-4호, 5(6)-7호, 8-9-10호로 각각 짝을 이루는 하나의 단위군으로 보이지만, 절대연대측정에 의하면 8호는 기원전 8~7세기에 해당되고 있어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9호와의 관계에 문제를 제시해준다. 따라서 작은 군이나마 몇 기의 주거가 시기를 달리하여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가운데 9호는 갈두 유적에서 대형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4군이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시기까지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13호와 9호의 공존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4군은 갈두 유적의 마지막 단계에 9호라는 대형주거를 바탕으로 기존의 전통성을 계속 이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장흥 신평 유적

신평 유적의 취락구조는 박수현(2004)과 신상효(2007)에 의해 이미 세부적으로 정리된 바 있다. 필자는 신평 유적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표 11〉와 같이 정리하였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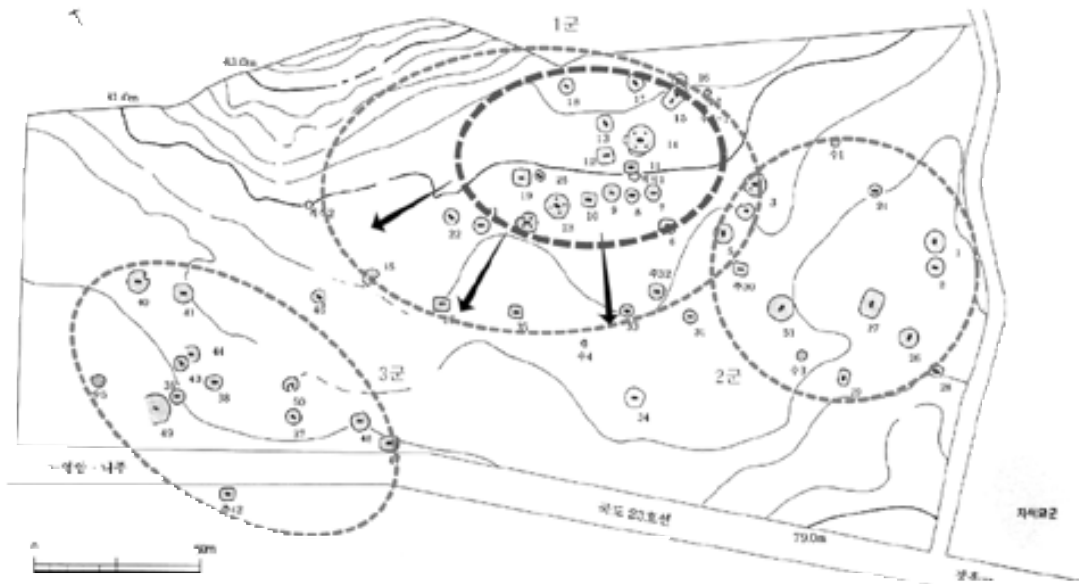
신평 유적의 주거군은 초대형 1기 또는 없음, 대형 1기 이상, 중형 다수, 소형으로 이루어지는 마

8) 유적에서는 모두 8기의 주거지에서 13건의 시료가 분석되었다. 필자는 이들 자료가 분명한 확기를 가지지 않고, 주거군간 시기차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공간활용과 주거배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을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을은 14호를 중심으로 하는 1군, 27호를 중심으로 하는 2군, 그리고 49호를 중심으로 형성된 3군으로 구분하였다. 마을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후 취락의 확장과정에서 상부구조의 도리방향을 일률적으로 북서-남동방향으로 설정하여 축조한 중형, 소형주거군(31~36, 45,46호)은 1군에 귀속시켰다.

〈표11〉 신평 유적의 주거군 현황

주거군	해당 주거	특징	
1군	초대형	14	· 중형주거가 중심 · 2개 이상의 공터 존재 · 중형32, 34, 36, 45와 소형31, 33, 35, 46호는 취락확장시 도리방향 일정하게 축조 : 계획적인 마을 확장 및 정비
	대형	15, 23	
	중형	6, 7, 9, 10, 11, 12, 13, 17, 18, 19, 20, 21, 22	
	소형	8, 16, 25	
2군	초대형	27	· 중형주거가 중심 · 1개의 공터 존재
	대형	3, 51	
	중형	1, 2, 4, 5, 26, 28, 29, 30	
	소형	24	
3군	대형	48	· 소형주거의 축조가 늘어남
	중형	40, 41, 44, 47, 48	
	소형	37, 38, 39, 42, 43, 50	



〈삽도 6〉 장흥 신평 유적의 취락 개념도

신풍 유적의 주거군은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주거의 배분을 공간적 활용과 주거의 배치에 따라 적용한 듯하지만 세부적인 배치는 정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취락은 1군과 2군을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었지만 중핵적 위치는 1군에 있었다고 판단되며, 1군의 계속적인 확장과 3군의 성장으로 1~3군 사이에 존재했던 넓은 공터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도리를 설정한 주거군을 일렬로 축조하는 방식으로 채워감으로서 취락이 확장되고 주거군의 밀도가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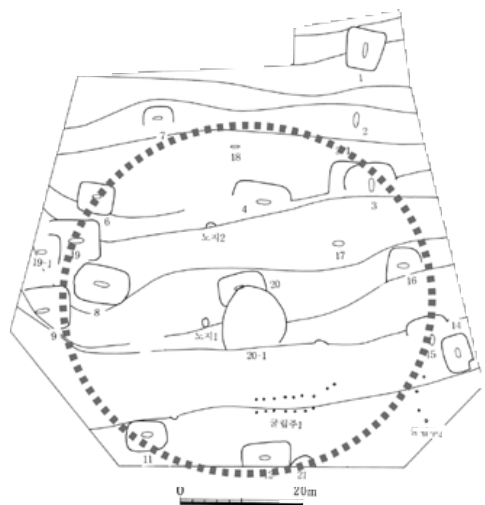
(3) 광양 용강리 기두 유적

용강리 기두 유적은 취락 중앙에 대형 주거(20-1호)가 존재하고 반경 약 25m 주위로 중·소형의 주거가 환상열을 이루는 구조로 판단된다. 3호와 3-1호, 12호와 21호, 14호와 15호 19호와 19-1호 등 모두 4건의 주거지 중첩이 다른 공터에 존재하지 않고 환상열(점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된다. 특히 환상열은 중앙의 초대형 주거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자체적인 주거군을 형성하고 있다. 북쪽군은 대형이 집중적으로 축조되었으며, 남쪽군은 중형, 동쪽군은 대형-중형-소형, 서쪽군은 중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군의 중앙에는 중형에 속하는 20호 주거가 폐기되고 동일 자리에 48.4㎡의 초대형 주거가 조성된 것 역시 핵심적 위치 혹은 중앙이라는 취락의 패턴을 의식한 분포로 판단된다. 초대형 주거인 20-1호가 축조되기 전에는 20호가 그 역할을 대신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1호의 축조로 취락의 구조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대형 주거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부 공터에서 무문토기가 출토되는 노지 2기가 조사된 것도 마을의 광장(공터)에서 여러 가지 의식이나 행위가 존재했음을 추정케 한다.

〈표 12〉 기두 유적의 주거군 현황

주거군	해당 주거				특 징	
중앙	초대형	20-1				- 중형 폐기 후 초대형 축조 - 공터의 중앙에 축조
	중형	20				
환상열	방위	동	서	남	북	- 주거군 집중화 - 북쪽군 : 대형주거-중형 - 동쪽군 : 대형-중형-소형 - 서쪽군 : 중형 - 남쪽군 : 중형
	대형	4			8, 9, 19	
	중형	1, 3	11, 12	14, 15, 16	19-1	
	소형				7	



중앙의 초대형 주거와 서쪽군 사이에는 정연한 굴립주건물이 존재하는데, 분명한 성격은 알 수 없다. 만약 당시 존재했던 건물이었다면 대형의 창고와 같은 취락의 공공건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2) 물질문화

남해안지역의 송국리형 주거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첫째,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과 종류가 매우 한정적이고 빈약하다. 대부분 석재편과 석기 가공에 사용된 부재들이며, 미완성품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둘째, 취락내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탐진강유역의 유물군이 가장 다양하다. 특히 석기류에서는 석촉, 석부, 석도, 낫, 연석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풍부한 조합을 이룬다. 토기류는 여수반도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출토되었는데 심발형토기류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다.

셋째, 토기류를 통해 늦은 시기까지 볼 수 있는 곳은 장흥 신평 유적과 순천 대석 유적으로 전자는 원형점토대토기가, 후자는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어 여수반도권역에서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까지 송국리형 주거문화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송국리형 주거와 함께 조사된 무문토기시대 주거 중 내부시설이 발견되지 않는 주거지가 확인된 점이다. 해남 분토리에서는 원형의 주거지에서 무문토기편이, 광양 칠성리(37호 등)에서는 원형과 방형의 주거에서 직립구연호·내만구연심발·외만구연호가 함께 출토되었다. 송국리형 주거와 함께 무문토기 출토 원형 및 방형의 주거지는 영암 장천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와 같은 현상인지 혹은 시기를 달리하는 주거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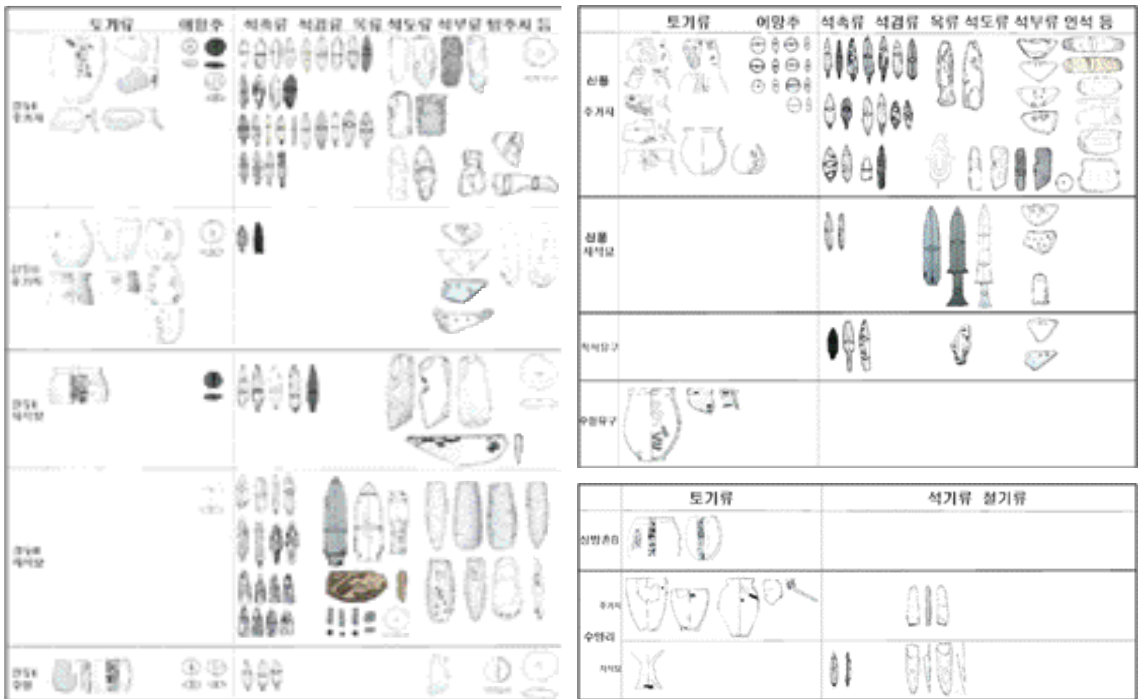
3) 편년

남해안지역에서 검출된 송국리형 주거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와 출토유물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검출된 연대폭은 대부분 기원전 8~5세기에 분포하고 있으며, 기원전 7~6세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탄소연대폭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획기를 구분하는 데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대규모 취락을 형성한 신평과 갈두 유적은 기원전 7세기를 전후하여 성장한 집단들로, 갈두와 신평은 시기적으로 공존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취락을 이루는 유적에서는 공터 중앙에 중심적인 건물 또는 건물군을 두고 일정한 반경내에 주거군이 밀집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중앙의 주변에 존재하는 주거군은 분화된 가구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세대공동체의 집합체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간적 분포는 7세기를 전후하는 시기에 이미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취락 형성에 따른 공간의 분할과 주거 축조 패턴은 지석묘군에서 볼 수 있는 기획화처럼 당시 구성원들에게 구체적 개념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추정된다.



〈삼도 7〉 탐진강유역의 주요 출토유물

구 분	토 기 류	석촉류	석도류	석착류	구슬류
진도·해남권역					
고흥반도권역					
여수반도권역					

〈삼도 8〉 진도·해남권역, 고흥반도권역, 여수반도권역 주요 출토유물

넷째, 순천 대석 유적을 통해 송국리형 주거인들은 기원을 전후한 시기까지 여수반도권역에 잔존했으며,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내만구연심발을 삼각형 점토대토기와 함께 생활용기로 계속 썼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남해안지역에서 여수반도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권역은 영산강유역을 비롯한 호남지역의 송국리형 주거문화의 범주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여수반도권역은 남강유역권과 인접해 있어 양 지역간 문화교류가 다른 지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수반도권역은 접이지대 혹은 문화적 동화나 융합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므로 남강유역권과의 비교연구가 필수적이다.

제주도의 삼양동과 같은 대규모 취락에서도 소위 '돼지코' 형태의 주거와 평면 원형의 조합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남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대륙에서의 점진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거의 구조 및 조합방식, 물질문화 등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글의 목적은 남해안지역에 산재하는 송국리형 주거유적을 지역권별로 정리하여 세부적인 특성을 살피고 나아가 남해안지역의 특성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각 권역별 비교자료의 수량차이와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분석과 해석이 쉽지 않았다. 또한 주거문화와 함께 다루어져야 할 분묘, 생산, 유통 등 다이나믹한 연계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주거문화에만 집중하여 남해안지역 송국리문화의 전체적인 경향과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 김승옥·고금남, 2004, 『전주 송천동 2가 유적』, 전북대학교박물관.
- 김정기, 1974, 「한국수혈주거지고」, 『고고학』제3집, 한국고고학회.
- 김진영·장성일·박영훈, 2009,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 II』, (재)전남문화재연구원.
- 박수현, 2004, 『장흥 신평리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송의정·은화수·최상중·윤희남, 2003, 『보성 동촌리유적』, 국립광주박물관.
- 순천대학교박물관, 2001, 「광양 용강리 택지개발지구 2차 발굴조사 약보고」.
- 신상효, 2007, 『한국 서남부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 안재호, 2006,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향미, 2006, 「영산강유역 송국리형주거지의 양상」, 『연구논문집』제 6호, 호남문화재연구원.
- 이동희·이순엽, 2006, 『여수 화동리·관기리 유적』, 순천대학교박물관.
- 이동희·이순엽·박태홍·이승혜, 2007, 『광양 칠성리 유적』, 순천대학교박물관.
- 이영철·박수현, 2005, 『장흥 신평유적 I』, (재)호남문화재연구원.
- 이종철, 2000a, 『남한지역 송국리형 주거지에 대한 일고찰』,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0b, 「송국리형 주거지에 대한 연구」, 『호남고고학보』12.
 2002a, 「호남지역 송국리형 주거문화」, 『한국상고사학보』36.
 2002b, 「송국리형 주거지의 구조변화에 대한 시론」, 『호남고고학보』16.
 2006, 「송국리형 주거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송국리유적 조사 30년, 그 의의와 성과』, 부여군·한국전통문화학교.
 2008, 「탐진강유역 송국리형 주거문화」, 『탐진강유역의 고고학』, 제16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 임영진·조진선·서현주, 1998, 『보성 금평 유적』, 전남대학교박물관.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제주시 외도동유적』.
- 최성락·김경철·김진영, 2007, 『보성 거석리 구주유적』, (재)전남문화재연구원.
- 최성락·김경철·김진영, 2007, 『강진 수양리유적』, (재)전남문화재연구원.
- 최인선·조근우·이순엽, 1999, 『순천 연향동 대석 유적』, 순천대학교박물관.
- 최인선·이동희·조근우·이순엽, 2002, 『여수 화장동유적 II』, 순천대학교박물관.
- 최인선·박태홍·송미진, 2003, 『광양 용강리 기두 유적』, 순천대학교박물관.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장흥 상방촌B유적』.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장흥 갈두유적 I』.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장흥 한동유적』.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장흥 방사유적』.

